

Mahler

KBS교향악단 X 정명훈의 말러 교향곡 4번

KBSSO X MYUNG-WHUN CHUNG'S MAHLER



KBS SYMPHONY ORCHESTRA

MASTERS
SERIES



2026. 10. 2. FRI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

Mahler

모두가 즐기는 공연, 여러분의 배려로 시작됩니다.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주변 관객을 위해 공연 중
일행과의 대화를 삼가주세요.

음악이 잠시 멈추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자제해 주세요.

연주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사진 촬영은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에만 가능합니다.

말러
G. Mahler

뤼케르트 가곡
Rückert-Lieder

Ⓢ 20'

나의 노래를 잊보지 마세요! Blicke mir nicht in die Lieder!
나는 부드러운 향기를 맡았네 Ich atmet' einen linden Duft
한밤중에 Um Mitternacht
그대가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한다면 Liebst du um Schönheit
나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졌네 Ich bin der Welt abhanden gekommen

인터미션

Intermission

Ⓢ 15'

말러
G. Mahler

교향곡 제4번 G장조
Symphony No. 4 in G Major

Ⓢ 55'

I. Bedächtig, nicht eilen
침착하게, 서두르지 않게
II. In gemächlicher Bewegung, ohne Hast
느긋한 움직임으로, 조급하지 않게
III. Ruhevoll, poco adagio
평온하게, 조금 느리게
IV. Sehr behaglich
매우 편안하게

✧ 총 소요시간 : 100분

✧ 총 소요시간은 현장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상기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휘 정명훈

Conductor

정명훈은 영적인 지휘자 - <르 몽드>

Myung-Whun Chung, chef spirituel - Le Monde

마에스트로 정명훈은 2026년 KBS교향악단 제10대 음악감독으로 취임했다. 세계 주요 오페라 극장과 교향악 무대에서 활약해 온 그는 독일 자르브뤼켄 방송교향악단 상임지휘자,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 음악감독,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역임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왔다. 2023년에는 이탈리아 라 스칼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역대 최초의 명예지휘자로 임명되었으며, 2027년부터는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 247년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인 음악감독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1990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사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맺은 정명훈은 바스티유 오페라와 함께한 메시앙의 '투랑갈릴라 교향곡'을 시작으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말러 교향곡 제2번, 베토벤 교향곡 제9번 등 40여 종의 음반을 주요 레이블을 통해 발매했다.

그는 2008년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임명되었으며, 2011년 평양을 방문하여 한반도의 평화 교류에 공헌했다. 2017년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일본, 캐나다의 정상들이 참석한 G7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연주회에서 라 스칼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등 음악을 통한 인도주의적 대의 실현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클래식 음악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5년 역대 최연소로 대한민국 최고 문화훈장인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안았고, 2011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고등급의 문화예술공로훈장인 '코망되르'를, 2022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이탈리아 공화국 공로훈장 2등장을 수훈하였다. 또한 1991년 프랑스 극장 및 비평가 협회로부터 '올해의 음악가상'을, 2013년 베니스 라 페니체 극장 재단으로부터 '평생음악상'을 받았으며, 이탈리아 음악평론가협회에서 수여하는 '프랑코 아비아티상'을 1988년과 2015년에 각각 수상하였다.

소프라노 크리스티아네 카르크

Soprano

소프라노 크리스티아네 카르크는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에서 수학하고, 재학 중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 데뷔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후 오페라와 콘서트, 가곡 무대를 넘나들며 폭넓은 레퍼토리로 세계 정상급 소프라노로 자리 잡았다.

런던 로열 오페라 하우스, 파리 국립오페라극장,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극장, 시카고 리릭 오페라극장,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 빈 국립오페라 극장, 베를린 국립오페라 극장, 바이에른 국립오페라 극장 등 세계 주요 오페라 극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마술피리>의 파미나, <피가로의 결혼>의 수잔나와 알마비바 백작부인, <장미의 기사>의 소피, <펠레아스와 멜리장드>에서 멜리장드, <루살카>의 루살카역 등 다양한 배역을 맡으며 활동 중이다.

오페라를 넘어 콘서트 무대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크리스티아네 카르크는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마리스 안손스, 리카르도 무티, 안드리스 넬손스, 키릴 페트렌코, 크리스티안 틸레만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협연해 왔으며 베를린 필하모닉,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드레스덴 슈타츠헤펠레,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등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들과도 함께 무대에 올랐다.

크리스티아네 카르크의 가곡에 대한 열정과 해석력은 널리 인정받고 있는데 특히 독일 리트와 말러 레퍼토리에서는 섬세하고 깊이있는 해석으로, 런던 위그모어홀, 빈 무지크페어아인,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등 주요 무대에서 선보이고 있다. 2026 / 27 시즌에도 마드리드 테아트 로 데 라 사르수엘라와 댈러스 오페라 극장에서 독창회를 예정하고 있다.

그녀는 2014년부터 고향 포이히트방엔에서 음악축제 ‘KunstKlang’을 직접 기획하며 예술감독을 맡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음악교육 프로젝트 ‘Be part of it! - Music for All’을 통해 음악의 사회적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브람스상, 바이에른 문화상, 바이에른 공로 훈장 등을 받았으며 여러 음반으로 에코 클래식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말러 / 뢰케르트 가곡

G. Mahler / Rückert-Lieder

작곡 1901년~1902년
초연 1905년 1월 29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4곡)
연주시간 약 20분

말러에게 있어서 1901년과 1902년은 일종의 정신적 분기점을 이룬다. 1901년 2월 빈 궁정오페라 감독으로 재직하던 말러는 과로 끝에 심각한 대장(직장) 출혈을 일으켰다. 간신히 출혈은 멎었지만 의사는 그가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다고 말했다. 이해 11월에 말러는 빈 사교계의 총아였던 알마 쉰들러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다음 해 3월 결혼한다.

‘뢰케르트 가곡’ 전 5곡은 이 전환적 시기의 산물이다. 말러는 1901년 여름에 다섯 곡 중 네 곡을 작곡했고 다음 해 알마에 대한 직접적인 사랑의 찬가로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한다면’을 작곡해 헌정했다. 이전까지 말러의 가곡 세계를 대표하는 ‘어린이의 이상한 뽀피리’가 서사적이고 발라드 적이며 유희적이라면, ‘뢰케르트 가곡’ 다섯 곡은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세계가 보인다. 말러 가곡 세계의 이러한 전환은 당시까지 그의 교향곡(1~4번)이 서사적이고 민속적인 세계를 크게 반영 했던 것에서 벗어나 5번부터 추상적이고 내면 표현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과 상응한다.

프리드리히 뢰케르트(1788~1866)는 독일 낭만주의 시인이면서 아랍어, 페르시아어, 중국어 등 동양의 언어를 연구한 언어학자였다. 여러 문명을 두루 섭렵한 이력을 반영하듯 그의 시는 섬세한 운율과 철학적 깊이, 동양적 달관과 체념의 정서를 담고 있다.

말러 외에도 슈베르트, 슈만, 브람스, R. 슈트라우스, 레거, 볼프 등이 그의 시에 곡을 붙였다. 말러는 이 내면적 시들에서 자신이 새롭게 추구하는 자아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후배 작곡가 베베른에게 보낸 편지에서 ‘뽀피리 이후에 뢰케르트 외에는 아무것도 작곡할 수 없었다. 이것은 근원으로부터 나온 서정시이며 다른 모든 것은 파생적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가곡집은 ‘어린이의 이상한 뽀피리’가 그렇듯 엄밀한 의미에서 연가곡은 아니다. 전체를 관통하는 줄거리나 정해진 연주 순서는 없다. 단지 말러 중기 양식 특유의 실내악적 관현악법과 문학적 통일성 및 선적 대위법 (당시 말러는 바흐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었음) 등의 공통점이 엿보인다.

나의 노래를 엿보지 마세요! (Blicke mir nicht in die Lieder!)

시는 벌들이 벌집을 짓는 과정을 비유하며 창작의 과정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말러는 벌들의 웅웅 소리를 묘사하기 위해 목관악기의 무궁동(같은 리듬형이 끝없이 계속됨)적인 8분음표를 사용했다. 각 연의 마지막 행이 끝나기 전에 첫 행의 선율이 급하게 끼어드는 모습은 마치 누군가 엿보는 것을 황급하게 가리는 듯한 제스처를 음악화한 것이다.

편성 성악 솔로, 플루트1, 오보에1, 클라리넷1, 바순1, 호른1, 하프,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Blicke mir nicht in die Lieder!	나의 노래를 엿보지 마세요!
Meine Augen schlag' ich nieder,	마치 나쁜 짓을 하다 들킨 사람처럼,
Wie ertappt auf böser Tat.	나는 눈길을 떨굽니다.
Selber darf ich nicht getrauen,	그 노래가 자라는 모습은
Ihrem Wachsen zuzuschauen.	나 자신조차 감히 지켜보지 못합니다.
Blicke mir nicht in die Lieder!	나의 노래를 엿보지 마세요!
Deine Neugier ist Verrat!	그대의 호기심은 배신입니다!
Bienen, wenn sie Zellen bauen,	벌들도 벌집을 지을 때에는
Lassen auch nicht zu sich schauen,	남이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고,
Schauen selbst auch nicht zu.	스스로도 들여다보지 않지요.
Wenn die reichen Honigwaben	꿀이 가득 찬 벌집을
Sie zu Tag gefördert haben,	벌들이 햇빛 아래 내놓으면,
Dann vor allen nasche du!	그때는 그대가 누구보다 먼저 맛보세요!
Dann vor allen nasche du! nasche du!	그때는 그대가 누구보다 먼저 맛보세요! 그대가 맛보세요!

나는 부드러운 향기를 맡았네 (Ich atmet' einen linden Duft)

제목은 독일어 ‘Linde(보리수)’와 ‘lind(부드러운, 은은한)’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를 담고 있다. 표기 그대로는 ‘나는 부드러운 향기를 맡았네’에 더 가깝다. 이 곡은 5음 음계와 하프, 첼레스타 등 신비한 음색을 이용해 동양적인 분위기가 감돌며 첼로와 더블베이스 등 저음 현악기를 배제해 중력이 없는 듯한 부유감과 향기가 퍼져나가는 듯한 이미지를 자아낸다.

편성 성악 솔로, 플루트1, 오보에1, 클라리넷1, 바순2, 호른3, 하프, 첼레스타, 바이올린, 비올라

Ich atmet' einen linden Duft!	나는 부드러운 향기를 맡았네!
Im Zimmer stand ein Zweig der Linde,	방 안에는 보리수 가지 하나가 놓여 있었지.
Ein Angebinde von lieber Hand.	사랑하는 이의 손이 건넌 선물.
Wie lieblich war der Lindenduft!	보리수 향기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던가!
Wie lieblich ist der Lindenduft!	보리수 향기가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Das Lindenreis brachst du gelinde!	그대는 보리수 가지를 살며시 꺾었지.
Ich atme leis im Duft der Linde	나는 보리수 향기 속에서 조용히 들이마시네.
Der Liebe linden Duft.	사랑의 부드러운 향기를.

한밤중에 (Um Mitternacht)

실존철학적인 깊이와 규모를 가진 곡이다. 계속 하강하는 음계를 사용해 어둠 속으로 침잠하는 주인공의 심리를 표현하며, 각 연의 시작과 끝에 ‘한밤중에’라는 구절을 반복한다. 반주부에는 현악기가 없이 목관과 금관, 팀파니, 하프, 피아노만을 배치해 밤의 냉혹함과 우주의 광활함을 나타냈다. 단조로 진행되다가 마지막 연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주님’ 부분에서 금관 악기의 장엄한 코랄과 함께 장조로 전환되어 이른바 ‘암흑에서 광명으로(per aspera ad astra)’의 서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편성 성악 솔로, 플루트2, 오보에2(오보에 다모레), 클라리넷2, 바순2, 콘트라바순, 호른4, 트럼펫2, 트롬본3, 튜바, 팀파니, 하프, 피아노

Um Mitternacht
Hab' ich gewacht
Und aufgeblickt zum Himmel!
Kein Stern vom Sterngewimmel
Hat mir gelacht
Um Mitternacht!

한밤중에
나는 깨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네!
수많은 별 가운데 그 어떤 별도
내게 미소 짓지 않았네.
한밤중에!

Um Mitternacht
Hab' ich gedacht
Hinaus in dunkle Schranken!
Es hat kein Lichtgedanken
Mir Trost gebracht
Um Mitternacht!

한밤중에
나는 생각에 잠겨
어둠 속으로 향했네!
한줄기 밝은 생각도
내게 위로를 주지 못했네.
한밤중에!

Um Mitternacht
Nahm ich in acht
Die Schläge meines Herzens;
Ein einz'ger Puls des Schmerzens
War angefacht
Um Mitternacht.

한밤중에
내 심장의 고동소리에
나는 귀 기울였네
고통의 맥박만이
불붙듯 일었네.
한밤중에.

Um Mitternacht
Kämpft' ich die Schlacht,
O Menschheit, deiner Leiden.
Nicht konnt' ich sie entscheiden
Mit meiner Macht
Um Mitternacht.

한밤중에
나는 싸움을 치렀네,
오 인류여, 그대의 고통을 둘러싼 싸움을.
내 힘만으로는
그 싸움을 끝낼 수 없었네.
한밤중에.

Um Mitternacht
Hab' ich die Macht
In deine Hand gegeben!
Herr über Tod und Leben:
Du hältst die Wacht
Um Mitternacht!

한밤중에
나는 그 힘을
당신의 손에 맡겼네!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주님,
당신께서 깨어 지키시네.
한밤중에!

그대가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한다면 (Liebst du um Schönheit)

다른 곡들과 동떨어진 시기인 1902년 알마에게 헌정한 연가풍의 곡으로, 말러는 생전에 이 곡의 관현악 반주를 작곡하지 않았다. 1910년 지휘자 막스 푸트만이 반주부를 관현악으로 편곡하였고, 말러의 스타일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에서 뢰케르트는 아름다움이나 젊음, 재산을 사랑의 조건으로 내세우지 말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 연 ‘그대가 사랑 그 자체를 위해 사랑한다면’에서 감정의 절정을 이룬다.

편성 성악 솔로, 오보에2, 잉글리시호른, 클라리넷2, 바순2, 호른4, 하프, 현5부

Liebst du um Schönheit,
O nicht mich liebe!
Liebe die Sonne,
Sie trägt ein goldnes Haar!

그대가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한다면,
아, 나를 사랑하지 말아요.
차라리 태양을 사랑하세요.
황금빛 머리칼을 지녔으니까요!

Liebst du um Jugend,
O nicht mich liebe!
Liebe den Frühling,
Der jung ist jedes Jahr!

그대가 젊음 때문에 사랑한다면,
아, 나를 사랑하지 말아요.
차라리 봄을 사랑하세요.
해마다 젊으니까요!

Liebst du um Schätze,
O nicht mich liebe!
Liebe die Meerfrau,
Sie hat viel Perlen klar!

그대가 보물 때문에 사랑한다면,
아, 나를 사랑하지 말아요.
차라리 바다의 인어를 사랑하세요.
빛나는 진주를 많이 지녔으니까요!

Liebst du um Liebe,
O ja, mich liebe!
Liebe mich immer,
Dich lieb' ich immerdar!

그대가 사랑 그 자체를 위해 사랑한다면,
아, 그때는 나를 사랑하세요!
언제나 나를 사랑하세요.
나도 그대를 영원히 사랑해요!

나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졌네 (Ich bin der Welt abhanden gekommen)

말러는 이 곡에 대해 ‘이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외딴곳에서 정신적 휴식을 추구했던 그의 내면을 드러내며 훗날 교향곡 5번 ‘아다지에도’의 원형을 이룬다고 평가되는 곡이기도 하다. 잉글리시 호른의 목가풍 전주가 명상적인 느낌을 준다. 이 선율이 성악부의 선율과 대화하며 곡을 전개해 나간다. 마지막 구절 ‘나는 오직 나만의 하늘에서 살아가네, 나의 사랑 속에서, 나의 노래 속에서!’에서 절정을 이룬 뒤에 영원 속으로 흘러가듯이 사라진다.

편성 성악 솔로, 오보에1, 잉글리시 호른, 클라리넷2, 바순2, 호른2, 하프

Ich bin der Welt abhanden gekommen,
Mit der ich sonst viele Zeit verdorben;
Sie hat so lange nichts von mir vernommen,

나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졌네.
한때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그 세상으로부터.
세상도 오래도록 내 소식을 듣지 못했으니,

Sie mag wohl glauben, ich sei gestorben!
Es ist mir auch gar nichts daran gelegen,
Ob sie mich für gestorben hält,
Ich kann auch gar nichts sagen dagegen,
Denn wirklich bin ich gestorben der Welt.
Ich bin gestorben dem Weltgetümmel!
Und ruh' in einem stillen Gebiet!
Ich leb' allein in meinem Himmel,
In meinem Lieben, in meinem Lied!

내가 죽었다고 믿을지도 모르지!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나는 조금도 개의치 않네.
세상이 나를 죽은 사람이라 여기든,
나는 굳이 부인할 말도 없네.
참으로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으니.
세상의 소란 속에서는 이미 죽은 몸이네!
이제 고요한 곳에서 쉬고 있네!
나는 오직 나만의 하늘에서 살아가네,
나의 사랑 속에서, 나의 노래 속에서!

말러 / 교향곡 제4번 G장조

G. Mahler / Symphony No. 4 in G Major

작곡	1899년~1900년
초연	1901년 11월 25일, 독일 뮌헨, 카임-잘
편성	소프라노 독창, 플루트4(피콜로 겸함), 오보에3(잉글리시호른 겸함), 클라리넷3(베이스클라리넷 등 겸함), 바순3(콘트라바순 겸함), 호른4, 트럼펫3, 팀파니, 글로켄슈필, 트라이앵글, 심벌즈, 썰매방울, 탐탐, 큰북, 하프, 현5부
연주시간	약 55분

1번 교향곡부터 계속해서 교향곡의 규모와 형식을 확장해 나간 말러는 3번에 이르러 6개 악장에 100분에 이르는 거대 교향곡에 이른다. 이에 비하면 4번은 4개 악장에 55분 길이로, 4악장에 소프라노 솔로가 들어가는 점만 제외하면 1번에 가까운 규모로 돌아왔다. 곡의 구성적인 면에서는 더 간결해진 모습을 볼 수 있다. 전체 합주 부분은 적고 실내악적인 간소한 울림이 두드러진다. 1악장 첫 주제부터 주요 주제들은 하이든이나 모차르트의 오마주로 느껴지는 친진한 고전성을 담고 있다.

처음부터 이 곡이 ‘간소한’ 곡으로 계획되지는 않았다. 최초 계획은 순 기악 악장과 성악을 덧붙인 악장이 번갈아 연주되는 총 6개 악장의 곡을 만드는 것이었다. 피날레를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 가곡 중 하나인 ‘천상의 삶’으로 마치는 것은 첫 계획부터 분명했다. 그는 이 노래를 전곡의 목표로 삼고 ‘꼭대기로 가면서 점점 가늘어지는 침묵과 같다’고 말했다. 원래 계획에는 ‘뿔피리’ 중 ‘천상의 삶’과 극적으로 대비되는 비참함의 노래 ‘지상의 삶’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숙고 끝에 성악 악장은 소프라노 솔로가 있는 ‘천상의 삶’ 하나만 남겨 4악장의 교향곡이 되었다.

말러는 1899년 이 곡을 쓰기 시작했고 이 해 오스트리아 잘츠카머구트에 있는 볼프강 호숫가의 마이 어니히에 별장을 짓고 이곳에서 1900년 8월에 이 곡을 완성했다. 다음 해 말러 자신의 지휘로 뮌헨에서 카임 오케스트라(현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초연했지만 말러의 교향곡 초연이 늘 그랬듯이 청중과 비평가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I. Bedächtig, nicht eilen

소나타 형식. 기존의 관념으로는 교향곡의 시작이라고 믿을 수 없는, 썰매방울 소리와 플루트의 서주로 시작된다. 제1바이올린이 초기 고전주의 작품을 연상하게 하는 제1주제를 연주한다. 제2주제는 첼로가 노래하는 느긋하고 기복이 큰 선율이다. 제시부의 고전적인 성격이 무색하게 발전부는 크게 고조된다. 재현부 전에 트럼펫으로 등장하는 독립된 동기는 이후 교향곡 5번 시작부의 트럼펫 솔로로 변형될 싹을 보여준다.

II. In gemächlicher Bewegung, ohne Hast

8분의 3박자의 스케르초. 트리오(중간부)가 두 개 있다. 독주 바이올린이 기괴한 분위기의 선율을 연주하는데 한 음 높이 조율해 더욱 특이한 음색을 낸다. 말러는 이 선율에 대해 ‘친구 하인(Freund Hein)이 연주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인이란 독일 민화에 나오는 죽음의 유령을 뜻한다. 첫 트리오는 목관이 주도하는 한가로운 부분이고, 두 번째 트리오에는 한층 명량하다.

III. Ruhevoll, poco adagio

‘평온하게(Ruhevoll)’이라는 지시어가 있는 명상적인 변주곡이다. 동화적으로 평온하지만 오보에가 시작하는 쓸쓸한 노래가 뒤따른다. 네 번째 변주에서 커다랗게 클라이맥스를 쌓아올린 뒤 고요하게 악장을 마친다.

IV. Sehr behaglich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 중 ‘천상의 삶’을 가져온 악장이다. 1부는 평화롭고 느긋하며, 2부는 방울 소리가 요란하게 등장하는 활기찬 부분이다. 점차 음량을 줄여 ‘가늘어지는 침묵처럼’ 고요히 곡을 마친다.

글 | 유윤중 (음악 칼럼니스트)

천상의 삶 (Das himmlische Leben)

Wir genießen die himmlischen Freuden,
D’rum tun wir das Irdische meiden.
Kein weltlich’ Getümmel
Hört man nicht im Himmel!
Lebt alles in sanfterster Ruh’.
Wir führen ein englisches Leben,
Sind dennoch ganz lustig daneben;
Wir tanzen und springen,
Wir hüpfen und singen,
Sankt Peter im Himmel sieht zu.
Johannes das Lämmlein auslasset,
Der Metzger Herodes d’rauf passet.
Wir führen ein geduldig’s,
Unschuldig’s, geduldig’s,
Ein liebliches Lämmlein zu Tod.
Sankt Lukas den Ochsen tät schlachten

우리는 천상의 기쁨을 누리며,
그러기에 세상의 것들은 멀리하네.
세상의 그 어떤 소란도
천국에서는 들리지 않고,
모든 것이 평온하게 살아가네.
우리는 천사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없이 즐겁게 지내네.
우리는 춤추고 뛰놀며,
깡충깡충 뛰며 노래하네.
성 베드로가 천국에서 이를 바라보네.
성 요한이 어린양을 풀어놓으면,
백정 헤로데가 그 양을 기다리네.
우리는 온순하고,
순결하고도 온순한,
사랑스러운 어린양을 죽음으로 이끄네.
성 루카는 소를 잡으면서도

Ohn' enig's Bedenken und Achten.
Der Wein kost' kein Heller
Im himmlischen Keller;
Die Englein, die backen das Brot.
Gut' Kräuter von allerhand Arten,
Die wachsen im himmlischen Garten,
Gut' Spargel, Fisolen
Und was wir nur wollen.
Ganze Schüsseln voll sind uns bereit!
Gut' Äpfel, gut' Birn' und gut' Trauben;
Die Gärtner, die alles erlauben.
Willst Rehbock, willst Hasen,
Auf offener Straßen
Sie laufen herbei!
Sollt' ein Fasttag etwa kommen,
Alle Fische gleich mit Freuden angeschwommen!
Dort läuft schon Sankt Peter
Mit Netz und mit Köder
Zum himmlischen Weiher hinein.
Sankt Martha die Köchin muß sein!
Kein' Musik ist ja nicht auf Erden,
Die unsrer verglichen kann werden.
Elftausend Jungfrauen
Zu tanzen sich trauen.
Sankt Ursula selbst dazu lacht!
Cäcilia mit ihren Verwandten
Sind treffliche Hofmusikanten!
Die englischen Stimmen
Ermuntern die Sinnen,
Daß alles für Freuden erwacht.

아무런 염려도 주저함도 없네.
천상의 술 저장고에서는
포도주가 한 폰도 들지 않고,
작은 천사들이 빵을 굽네.
온갖 종류의 좋은 채소들이
천상의 정원에서 자라네.
좋은 아스파라거스와 콩,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네.
음식이 접시마다 가득 준비되어 있네!
좋은 사과와 배, 포도도 있고,
정원사들은 무엇이든 허락해주네.
노루를 원하는가, 토끼를 원하는가?
탁 트인 길 위로
그들이 이리로 달려오네!
혹시라도 금식일이 찾아오면,
물고기들이 모두 기뻐하며 헤엄쳐 오네!
저기 성 베드로가 벌써
그물과 미끼를 들고
천상의 연못으로 달려가네.
성 마르타가 요리사가 되어야 하네!
세상에 그 어떤 음악도
우리의 음악과 견줄 수 없네.
일만 일천 명의 처녀들도
용기를 내어 춤을 추고,
성 우르술라 자신도 이를 보며 웃네!
성 체칠리아와 그 벗들은
훌륭한 궁정 음악가들이네!
천사들의 목소리가
우리의 감각을 일깨워,
모든 것이 기쁨 속에 깨어나네!

번역감수 | 조창현

오늘 공연에 대한 연주자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만나보세요!



YouTube
KBS교향악단



색채의 변주

VARIATIONS IN COLOR

2026. 10. 30. FRI 20:00

예술의전당콘서트홀

지휘
미하엘 잔데를링
Conductor
Michael Sanderling

바이올린
프랑크 페터 짐머만
Violin
Frank Peter Zimmermann

코른골트 / 주제와 변주곡, 작품 42
E. W. Korngold / Theme and Variations, Op. 42

월튼 / 바이올린 협주곡
W. Walton / Violin Concerto

브람스 / 피아노 사중주 제1번 g단조, 작품 25(쾨헬러 관현악 편곡)
J. Brahms / Piano Quartet No. 1 in g minor, Op. 25 (Arr. Schönberg)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1956년 창단된 KBS교향악단은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발전을 이끌어온 국가대표 오케스트라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피에타리 잉키넨 등 세계 정상급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어왔으며, 2012년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2026년 창단 70주년을 맞은 KBS교향악단은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통해 한국 교향악의 미래를 선도하며 세계 속의 오케스트라로 도약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제10대 음악감독으로 선임된 정명훈 지휘자가 있으며, 그는 오케스트라의 예술적 정체성과 중장기 비전을 이끌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로 매년 100회 이상 공연을 펼치며 10만 명이 넘는 관객과 만나고 있다. 정기연주회와 기획·초청 공연뿐 아니라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클래식의 저변을 넓혀왔다. 방송교향악단으로서 KBS TV·라디오를 통해 연주를 전국에 중계하며, 지역 음악제와 사회공헌 연주로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저출생 위기 극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신부와 태아를 위한 ‘임산부를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며 클래식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글로벌 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은 창단 이후 꾸준한 해외 활동을 이어오며 국제적 위상을 쌓아왔다. 그 과정에서 도이체 그라모폰(DG) 실황 음반 발매를 비롯해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 등을 선보이며 세계 무대와의 교류를 더욱 확장했다. 2023년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서 공식 평가 5점 만점을 기록했고, 2024년에는 폴란드 쇼팽 협회와 체코 브르노 슈필베르크 페스티벌에 아시아 오케스트라 최초로 초청받으며 국제적 존재감을 높였다. 2025년에는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동 연주회를 열어 문화 외교의 상징적인 무대를 완성했다. 이러한 국제 교류는 KBS교향악단이 국가대표 오케스트라를 넘어 K-클래식 세계화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K-클래식 콘텐츠 허브

KBS교향악단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클래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COVID-19 팬데믹 시기, KBS 전 채널을 통한 무관중 공연으로 2만 3천여 명의 실시간 관람을 기록했으며, 온라인 클래식 아카이브 ‘디지털 K-Hall’을 개관해 고품격 콘텐츠를 제공했다. 특히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은 아시아 클래식 계열 최초로 구독자 20만 명을 돌파하며 클래식 대중화를 이끄는 대표 채널로 성장했다. 창단 70주년을 맞은 2026년, KBS교향악단은 정명훈 제10대 음악감독과 함께 시대와 세대를 잇는 음악으로 ‘클래식이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며 세계 속에서 울려 퍼지는 클래식의 중심으로 나아갈 것이다.

KBS교향악단

사장	이승환
음악감독	정명훈
제1바이올린	최병호 부악장 반선경 수석 유신혜 부수석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운 오지은 유지인 이소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이수연
제2바이올린	권민지 수석 임정연 부수석 안지현 부수석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해 박서현 최여은 김시연 표정아 소재희
비올라	진덕 수석 한넬리 부수석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정지수
첼로	김우진 수석 윤여훈 부수석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더블베이스	이창형 수석 김남균 부수석 안수현 부수석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강창대 곽민재
플루트	김태경 부수석 이철호 전서영
오보에	이지민 수석 김종아 부수석 최진 부수석 조성호
클라리넷	이하늘 부수석 박한 앙수현
바순	박준태 수석 고주환 부수석 김소연 정순민
호른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장수정
트럼펫	남관모 수석 김주원 부수석 정용균 김승헌
트롬본	김상우 부수석 윤지언
베이스트롬본	정다운
튜바	Norito Usui
팀파니	이원석 수석
타악기	이재원 수석 장세나 Matthew Emster
하프	김서원

객원수석

악장	Yuki Manuela Janke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제1악장
플루트	Silvia Careddu 수석
클라리넷	조인혁 수석
호른	Martin Schöpfer 수석

사무국

사무국장	홍석우
공연기획팀	팀장 손유리 차장 김지민 과장 성채은 전현정 대리 최난희 사원 허효정 인턴 손지수 공연지원파트 [악기담당] 사원 김경오 정오준 [악보담당] 과장 장동인
공연사업팀	팀장 이한신 책임 손대승 차장 김원재 유연철 과장 이미라 PD 서영재 사원 장태형 신재영
경영관리팀	팀장 강길호 차장 유정의 박연선 사원 윤자윤 정태훈

KBS교향악단 후원회

KBS교향악단 후원회는 소중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KBS교향악단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세상과 더욱 폭넓게 나누고,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후원 회원에게는 풍성한 혜택과 함께 KBS교향악단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채로운 행사 참여 기회와 교류의 장이 주어집니다. 1956년 창단한 역사와 전통의 KBS교향악단 새로운 후원회에 적극적인 동참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등급	정가	기간	등급별 혜택
Symphony	1억원 이상	10년	- 스페셜 클래스(소속 기관/단체 위한 클래스)
Concerto	3천만원 이상	5년	- VVIP 만찬
Cantata	1천만원 이상	2년	- VIP 만찬 - KBS교향악단 명예의 전당 명단 게재
Nocturne	5백만원 이상	1년	- 공연장 VIP라운지 이용 (환담 및 다과) - 후원의 밤 행사 초청 - 정기연주회 백스테이지 투어
Prelude	1백만원 이상	1년	- 공연전 강의 초청 - 특별연주회 초청 (후원인을 위한 특별연주회) - 교향악단 투어 (KBS연습실 리허설 참관/연 1회)
Etude	1십만원 이상	1년	- 하단의 공통혜택

후원회 공통혜택

- 정기연주회 초대 (Prelude 등급 이상)
- 기부금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가능)
- 정기·기획연주회 티켓 20% 할인 (공연당 1인 2매)
- KBS교향악단 뉴스레터 온라인 서비스, 웹진 발송
- 리허설 참관 초청 (Etude 등급은 연1회, 상위등급은 추가기회 제공)
-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북 후원명단 게재 (Etude 등급은 홈페이지 게재)

- ✧ 후원회원 간 공식 행사 외 네트워크 유지되도록 행정 지원
- ✧ 기존 후원회원은 해당 종료기간까지 기존 혜택 유지

프렌즈클럽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회원) 메일링 서비스 및 웹진 발송

KBS교향악단 ('kbssoforever')
Facebook.com/kbssymphony 가입자 대상

후원회 가입 문의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 Tel. 02-6099-7413
yyc@kbsymphony.org



KBS교향악단 이사회

이사장	이건수 (주)동아일렉콤 회장	이사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감사	고태관 법무법인 민 대표변호사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상임이사	이승환 KBS교향악단 사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유진 KBS 시청자센터장
			이황선 KBS 예능센터장
			하중란 KBS 라디오센터장

후원회 명단

Symphony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Concerto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 서봉준 (주)동림유화 대표 이영애 배우 이학노 슈퍼월드교역(주) 회장 허남선 (주)우성플라테크 명예회장 NH-Amundi 자산운용	Prelude	권정숙 김미래 김연주 BCS ASSET CONSULTING 세무사 김희진 포크가수, DJ 박병원 박옥균 하나은행 런던자금센터 박지현 KBS 아나운서 박향미 배홍기 PKF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 서성희 삼성생명 명인 유순신 (주)유엔파트너즈 대표 윤도식 법무법인 해자현 대표 변호사 윤혜원 전)KBS교향악단 오보에 단원 이규혜 한양대학교 교수 이명숙 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Cantata	김영기 변호사 김원희 매크로통상(주) 서봉준 (주)동림유화 대표 설명수 석교실업 회장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Nocturne	이재록 (주)석교디앤디 대표 한문규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NH투자증권 (주)유카스 정광훈 대표		이유민 장희용 변호사 전희재 노무사 조명현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연구교수 최기수 최앤이치과 원장 최정아 (주)코스모스악기 하나은행

2026년 협찬 기업

비씨카드(주) (주)코리아타임스 (주)우리카드 이희건 한일교류재단 (주)서울경제신문	1억원 이상	(주)광주은행	5백만원 이상
(주)신한은행	3천만원 이상	일동후디스(주) 유한킴벌리(주) (주)메이블 (주)닥터맘	임산부음악회 물품후원
엘앤티렉스(주) 셀리코리아컴퍼니(유) 대한소방공제회 (주)소다(현물협찬)	1천만원 이상		

● **A**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 **T** 02-6099-7400
● **F** 02-6099-7416
● **H** www.kbssymphony.org

● **f** facebook.com/kbssymphony
● **+**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 (혹은 'kbssforever')
● **@** kbssymphonyorchestra
● **▶** youtube.com/@KBS_Symphony_Orchestra